

The Effect of Ethical Education on Accounting Fraud: Fraud education for Business and Accounting Students*

윤리 교육은 회계 부정 행위를 막을 수 있을까?: 윤리 교육이 경영/회계전공 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Jae Mee Yoo(First Author)

School of Business, Cheongju University
(yoojm@cju.ac.kr)

Mi Lim Chon(Corresponding Author)

School of Business, Cheongju University
(milim@cju.ac.kr)

Woojae Choi(Co-Author)

School of Business, Cheongju University
(choiwj@cju.ac.kr)

.....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al education and accounting fraud, one of the representative unethical behaviors of firms. In the experiment, the subjects attend a special lecture on ethical issues such as agency problems and moral hazards. The direct effect of education on the intentions of ethical behavior is explored by comparing the intentions of the subjects in the control group with no treatment. In addition, the mechanism by which the effect of ethical education occurs and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of ethical education by the regulatory focus of subjects are investigated. It is verified that ethical education significantly reduces the intention to commit financial statement fraud in the ethical dilemma based on Cressy’s fraud triangle. It is also found that moral philosophy (idealism)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intentions of ethical behavior. Ethical education increases the idealism that leads an individual’s moral judgment and in turn, it reduces the intentions of unethical behavior. Moreover, the intentions of unethical behavior are significantly more reduced in those with prevention focus compared to those with promotion focus.

Key Words: ESG, accounting fraud, ethical education, fraud triangle, moral philosophy, regulatory focus
.....

Submission Date: 08. 31. 2021 Accepted Date: 10. 22. 2021

* This research i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7S1A5A2A03069098).

1. 서론

회계 부정(accounting fraud)은 행위자가 의도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왜곡하는 기업의 대표적인 비윤리적 행위다. 이는 기업 이해관계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고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여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경영의 부상은 기업의 윤리, 정도 경영이 기업 생존의 필수가 됐음을 의미한다. 기업의 비윤리적 회계 부정이 사회 전반에 일으키는 파장을 고려하면 회계 부정을 막고 경영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ESG 시각에서 기업 생존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회계 부정이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흡에서 비롯된다는 자각은 그동안 조직 구조, 시스템 등 외적 요인의 개선을 이끌었다. 그럼에도 회계 부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외적 요인 뿐 아니라 조직 내적 요인인 회계정보 생산자로 관심이 확장됐다. 회계 정보 생산자 더나가 예비 조직 구성원인 학생의 회계 부정에 대한 인식 부족, 윤리 교육 부족 등이 거론됐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비윤리적 행위의 실행자는 결국 조직 구성원이기 때문이다(Lee & Chang, 2012; Martinov-Bennie & Mladenovic, 2015; Smith, Smith, & Mulig, 2005).

본 연구는 기업 내 실행자인 조직 구성원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이 기업의 윤리 경영 즉, 회계 부정이라는 비윤리적 행위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탐색했다. 연구대상으로 예비 조직 구성원인 학생을 선정하고 학생 대상 윤리 교육이 회계 부정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를 탐색했다.

기존 연구는 주로, 윤리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도덕적 발달 수준(CMD, cognitive moral development, Kohlberg, 1981) 변화에 관심을 두고 윤리 교과목 수강이 도덕 수준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했다. 개인의 도덕발달 수준이 윤리적 의사결정의 의미있는 선행변수이긴 하지만 윤리 교육이 회계 관련 윤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탐색한 연구는 드물다(예외: Jung, 2001; Pae & Kim, 2018). 회계 분야와 달리 마케팅, 인사조직 분야에서는 조직 내 윤리 프로그램이 태도 또는 의사결정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예: Barnett & Vaicys, 2000; Goolsby & Hunt, 1992; Hunt & Vitell, 1986; Walker & Moran, 2019).

본 연구는 윤리 교육이 예비 조직 구성원의 회계 관련 윤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탐색하고 비교과 형식의 윤리 교육 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개설된 윤리 교과목의 부족함을 고려하면 교과목이 아닌 대안 형식의 교육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도덕적 해이 사례를 담은 특강 형식의 윤리 교육 자료와 Cressy(1953)의 부정삼각(fraud triangle)이론을 바탕으로 압박, 기회, 합리화 요소를 내포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시나리오로 개발하고 학생 대상 실험을 진행했다.

이론적으로는 Hunt & Vitell(1986)의 윤리적 딜레마-도덕철학(도덕판단)-의사결정 모형을 바탕으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윤리 교육이 비윤리적 의사결정(행동 의향)을 감소시키는지, 그 과정에서 윤리 교육이 도덕철학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이 윤리적 의사결정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지 검증했다. 또한, 개인 특성인 조절초점 성향에 따라 윤리 교육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탐색했다.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응은 환경과 개인특성의 상호작용 결과다(Treviño, 1986). 본 연구를 통해 외

적 자극인 윤리 교육이 개인의 도덕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 의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윤리 수준과는 별개인 '도덕적 판단의 지침이 되는 도덕철학'(Forsyth, 1980)의 역할을 탐색할 수 있다. 이는 20대 대학생도 교육을 통해 윤리적 가치관이 변화할 수 있고(Weber & Glyptis, 2000) 이를 통해 윤리적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리고 비교과 형식의 윤리 교육 효과 검증은 윤리교과 부족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개인의 조절 초점 성향에 따른 윤리 교육의 효과 차이 검증은 부정행위 방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피교육자별 접근방법(예: 교육내용, 사례 개발 등)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

2.1 회계 부정

2.1.1 개념 및 유형

재무제표가 왜곡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데 행위자의 의도 개입 여부에 따라 부정(fraud)과 오류(error)로 구분한다. 회계 부정은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행위자의 의도에 따라 잘 못 표시된 사기행위로 경영자, 내부감시기구, 종업원 또는 제3자가 불법적이거나 부당 이득을 얻기 위해 저지르는 기만행위이다. 행위 주체에 따라 경영자나 내부감시기구에 의한 '경영자 부정'과 종업원에 의한 '종업원 부정'으로 분류되며, 두 경우 모두 회사 외부의 제3자와 공모가 있을 수 있다(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240.1.2).

반면 오류는 재무제표상의 금액이나 공시 사항의 누락 등 비의도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수집과 처리의 오류, 사실에 대한 간과 또는 해석 착오에 의한 회계추정의 오류, 그리고 측정, 인식, 분류, 표시 또는 공시와 관련된 회계기준 적용이 잘못된 것 등을 말한다(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240.1.1).

회계 부정은 대표적인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로서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준다. 또한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감소시킨다. Wells (2010)는 미국에서 발생한 회계 부정 사건을 분석하고 부정의 종류별로 발생빈도와 금액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정의 유형은 자산 횡령(asset misappropriation) 86.3%, 부패(corruption) 32.8%, 그리고 회계보고 부정(fraudulent statement) 4.8%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회계보고 부정으로 인한 피해액이 자산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보다 약 30배나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계 보고 부정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구성원 관리가 왜 우선되는가를 보여준다.

부정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자산의 절취·오용·횡령은 회사의 현금을 횡령하거나 회사로 유입되는 수익을 장부에 기록하기 전 절취하는 행위, 허위지출이나 재고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절취, 횡령, 오용하는 행위 그리고 회사의 영업비밀, 특허권, 연구결과 등을 경쟁사에 제공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의 세부 유형이 있다. 둘째, 부패는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뇌물 및 불법선물, 그리고 강요·착취 등의 유형이 있다. 경영자나 종업원이 사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여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뇌물이나 불법선물, 향응 등을 수수·

제공하고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 지위의 남용이나 부당한 압력, 혹은 협박 등을 가하여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마지막은 분식 회계(financial statement fraud)로 수익과 재고자산의 과대 계상, 부채와 비용의 과소계상, 그리고 부적절한 공시와 관련된 분식 회계가 있다. 세부 유형으로는 허위수익, 허위 외상매출액을 기록하거나 재고자산을 부풀려 매출원가를 조작하는 행위, 부채를 기록하지 않거나 축소 또는 비용을 자본화하여 자산으로 처리하는 등 자산을 과대 계상하거나 공시를 부적절하게 하는 행위가 있다(Albrecht, Holland, & Malagueño, 2015).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회계 부정 발생 시 피해 금액 규모가 큰 분식회계 중 허위 외상매출을 장부에 기록하는 회계 보고 부정 유형을 사례로 개발했다.

2.1.2 부정의 동기

회계 부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Cressy (1953)는 범죄 사건을 분석해 범죄자의 동기(motivation), 기회(opportunity), 합리화(rationalization) 세 가지 요인이 맞물렸을 때 부정이 발생한다는 부정 삼각이론(Fraud Triangle)을 제시했다. Cressy의 부정 삼각이론은 여러 분야에 적용되는데 이를 회계 분야에 적용해 부정이 발생하는 상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기는 경영진이나 종업원이 회계 부정을 저질러야 할 유인을 갖거나, 상황적 또는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과도한 목표가 설정되고 보상, 승진, 해고 등의 압력이 존재하거나 개인적으로 재무적 압박 등을 받게 되면 회계 부정을 저지를 동기가 발생한다(Healy & Palepu, 2001). 예를

들어, 재무성과를 바탕으로 경영자 보상을 할 때, 경영자가 손실 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이익조정을 하는 행위가 있다(Rho & Bae, 2004; Beneish, 1999).

둘째, 기회는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이 내부 통제를 무력화할 수 있거나 내부 통제에 대한 책임이 있어 부정을 저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때 발생한다. Dorminey, Fleming, Kranancher, & Riley(2010)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약한 기업은 감독 부족으로 회계 부정이 발생할 기회가 증가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합리화는 행위자가 자신의 부정 행위를 정당화 하려는 것으로 '내가 회사를 위해 노력한 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범죄가 아니다' 혹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 등과 같이 회계 부정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회계 부정은 동기나 압력,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행위에 대한 합리화의 세 요소가 모두 결합될 때 발생한다.

본 연구는 Cressy의 부정 삼각이론(1953)을 바탕으로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개발하고 그 상황에서 응답자의 행동(의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탐색할 것이다.

2.2 회계정보 생산자의 도덕적 해이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에 따르면, 기업은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에 의한 계약의 집합체고 각 집단은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한다. 기업의 주인(principal)은 주주고 경영자는 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은 대리인(agent)이다. 주주의 목표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지만 경영자

는 고용 계약에 따라 자신의 보상을 극대화 하고자 하므로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부 이해관계자인 경영자는 외부 이해관계자인 주주보다 월등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정보 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이 발생한다. 이는 대리인이 윤리적, 법적으로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경영자는 주주가 자신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주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보고 이익을 조작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 이에 주주 입장에서 대리인을 감시하기 위한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 발생한다(Jensen & Meckling, 1976).

회계 업무에서 경영자를 포함한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부 통제가 잘 되는 회계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으로 산출된 회계 정보에 근거해 기업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대리인에게 적합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다양한 감시(monitoring)시스템을 통해 부정을 예방하거나 적발해야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감시 시스템의 발전과 법적,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회계 부정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결국 제도적 장치와 법적인 처벌 강화 외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유인책 그리고 회계 정보 생산자의 회계 부정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경영자와 조직 구성원 그리고 예비 구성원인 학생을 대상으로 회계 부정에 대한 (윤리)교육이 필요한 이유다(Lee & Chang, 2012; Smith et al., 2005).

2.3 윤리 교육

2.3.1 학생대상 윤리 교육

윤리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적 문제를 식별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향후 직업적 차원의 윤리적 이슈에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리 교육에 노출된 학생은 의사결정 상황에서 도덕적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다(Sims & Sims, 1991).

대학생들은 이미 윤리 규범이 형성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대학에서의 윤리 교육도 학생들의 윤리적 민감성, 도덕적 추론 능력, 그리고 윤리적 행동을 발전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Weber & Glyptis, 2000). 특히, 체험 학습(experiential learning)을 통한 교육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지각과 이해를 깊게 만들어 개인의 윤리적 규범을 수정하고 다듬어 줄 수 있다. 개인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 잘 알고 도덕성을 발전시켜 왔다고 해도 업무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윤리적 이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서툴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사례는 최소한 본인이나 동료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고 이를 통해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Hunt & Laverie, 2004)

2.3.2 연구에 사용된 윤리 교육 내용

본 연구는 Hunt & Laverie(2004)의 주장을 바탕으로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교육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그리고 대리인 이론 등을 25분 가량의 영상에 담았다. 먼저 Akerlof(1970)의 레몬마켓을 가지고

정보비대칭, 도덕적 해이, 레몬마켓, 시장 실패, 역선택,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다.¹⁾ 두 번째로 기업에서의 주주와 경영자 사이에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와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도덕적 해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현실 사례를 제시했다. LH직원의 부동산 투기, 실손보험료의 폭등, 새마을금고 직원의 횡령, 대우조선 분식 회계 등 경영자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도 연관된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현실 상황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설명했다.

연구에 사용된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윤리 문제와 도덕적 해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 같은 행위가 본인을 포함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는 것, 그 결과는 개인만이 아닌 조직과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2.4 윤리 교육과 윤리적 의사결정

2.4.1 윤리적 의사결정

윤리적 의사결정은 도덕적 규범에 따라 판단된 행동으로 법적, 도덕적으로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는 결정을 의미한다(Jones, 1991; Treviño, Weaver, & Reynolds, 2006). Rest(1986)는 윤리적 의사결정을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으로 보고 도덕적 인지(cognition), 도덕적 판단(judgement), 도덕적 행동 의향(intention), 도덕

적 행동(behavior)의 4단계 모델을 제시했다. 윤리적 의사결정은 문제 상황을 도덕적으로 민감하게 인식하고 관련 정보를 처리하여 도덕적 판단(윤리적인가 아닌가)을 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으로 한 단계에서라도 실패하면 윤리적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Hunt & Vitell(1986)은 Rest(1986)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 도덕적 판단에 사용되는 인지적 추론 체계인 도덕철학을 포함시켰다. 1단계는 윤리적 문제 지각, 2와 2-1단계는 두 가지 도덕철학의 조합을 통한 사안 평가와 도덕적 판단, 3단계 행동 의향, 4단계 행동의 모형을 제시했다. Rest 이론과 차별점은 도덕적 판단 단계에서 두 가지 도덕 철학을 사용해 윤리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도덕적 원칙과 일관성 유지를 중시하는 의무론적(deontological) 접근 그리고 행동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따라 도덕성이 결정된다고 보는 결과론적(teleological) 접근의 두 가지를 조합해 사안을 평가하고 도덕적인가를 판단하게 된다. 본 연구는 도덕철학이 포함된 Hunt & Vitell의 모형을 기반으로 교육이 윤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이 과정에서 도덕철학의 역할을 탐색하고 교육(자극)-도덕철학-의사결정의 영향력을 탐색할 수 있다.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변수는 개인 및 상황 특성 그리고 도덕적 이슈의 특징 등이다(Kish-Gephart, Harrison & Treviño, 2010). 첫째, 개인 특성인 인구통계 및 심리적 특성, (도덕

1) 중고차시장에서 판매자는 판매할 차량의 상태와 사고 이력 등 상세 정보를 알고 있지만 구매자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정보 비대칭 발생으로 구매자는 결모습은 정상적이나 실제로는 문제가 많은 중고차를 살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구매자들은 속아서 차를 구매할 것을 우려해 싼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고 결국 중고차 시장은 저품질의 차량만 유통되는 레몬 마켓이 된다. 레몬 마켓에는 결국 불량품이 넘치게 되고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게 되는 시장의 실패로 이어진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구매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를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 한다. 또한 정보를 많이 가진 판매자는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 의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보가 적은 구매자의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또는 속이는 행동을 하는데 이를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에 대한) 개인의 가치/철학, 인지적 도덕 발달수준, 그리고 사회인지 관점에서 자기통제(self regulation) 메커니즘 등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Stajkovic & Luthans, 1997). 둘째, 개인의 윤리적 행동은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하고 상황적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의 윤리적 또는 비윤리적 행동은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상황과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다(Treviño, 1986). 구성원이 속한 조직의 문화, 윤리적 리더십, 동료, 윤리 프로그램 등이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변수가 된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이슈 특징은 부정적 결과의 크기,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영향받는 사람들의 부작용 정도 등을 포함하는 도덕적 강도(intensity)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 Hunt & Vitell의 모형을 기반으로 윤리적 딜레마상황-도덕철학-(도덕판단)-행동의향 과정에서 윤리 교육의 역할을 탐색할 것이다. 도덕적 강도와 다른 상황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 윤리 교육(상황적 변수)이 예비 조직 구성원인 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한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개인적 특성인 도덕철학 그리고 자기 조절 초점(regulatory focus)의 역할을 탐색한다.

2.4.2 윤리 교육과 개인의 도덕 철학(moral philosophy) 그리고 윤리적 행동

윤리적 딜레마상황-도덕철학-(도덕판단)-행동의향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윤리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할까? 현재의 윤리 교육은 Kohlberg(1981)의 이론에 따라 도덕적 추론 능력을 키워 도덕적 판단 능력(무엇이 옳고 그른지)을 발달시키는 목적을 갖는다. Kohlberg는 개인이 성장하면서 도덕적 판단 능력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인지적 도덕발달 수준(cognitive

moral development, CMD)을 가지고 설명한다. 도덕성 발달을 위해서는 논리적 이유나 근거를 통해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이를 정당화하는 도덕적 추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을 통해 도덕적 판단 능력, 도덕성을 발달시키면 도덕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본 것이다(Moon, 2017).

개인의 도덕적 판단은 개인의 도덕철학에 따라 달라진다.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도덕적 가치관인 도덕철학을 윤리적 기준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자신만의 직관적인 도덕 철학을 발전시키고 어떤 결정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기준을 갖게 된다. 사람마다 독특성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되는 도덕적 고민은 두 가지다. 내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까에 대한 우려(이상주의) 그리고 내 행동이 도덕적 기준과 양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상대주의)다. 이는 도덕규범에 대한 개인의 선호, 신념을 보여주는 윤리적 포지션 즉, 도덕 철학을 구성한다(Forsyth, 1980, 2019, p.22; Hunt & Vitell, 1986; Reidenbach & Robin, 1990).

이상주의 성향은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은 일관되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정도로 이상주의 성향이 강한 개인은 문제에 포함된 도덕적 요소를 민감하게 지각하고 도덕적 기준에 의존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상주의 성향이 낮은 사람은 때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항상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한편, 상대주의는 항상 적용되는 보편적 도덕원칙을 수용/거부하는 정도로 상대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유일하게 수용되는 도덕 기준보다 개인의 역할,

소속집단 등 상황적 요인에 따라 도덕적 판단을 한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도덕적 기준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개인과 그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도 더 큰 이익을 위해 때때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주의와 상대주의의 두 개념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독립적으로 두 성향의 높고 낮음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Forsyth, 2019).

본 연구에서 실시된 윤리 교육은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본인의 비윤리적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과 원칙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이를 통해 문제 상황의 윤리적 이슈를 부각하고 도덕적 원칙 그리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안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도덕적 요소에 대한 지각을 높이고 도덕적 판단 과정에서 도덕 원칙을 중시하는 엄격한 이상주의적 도덕 철학을 강화시킬 수 있다.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이상주의의 도덕 철학은 상대주의 철학에 비해 윤리적으로 민감하며 도덕적 판단에 있어 더 엄격한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이다(Elias, 2002; Singhapakdi, Vitell, & Franke, 1999). 그리고 이상주의의 도덕 철학은 도덕적 판단 그리고 도덕적 행동(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Valentine & Bateman, 2011).

결국, 윤리 교육은 개인의 윤리적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칙에 따른 도덕적 판단을 이끌어내는 이상주의적 도덕철학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기존 연구도 윤리 교육이 조직내 구성원의 비윤리적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Treviño, 1986; Treviño et al., 2006). 그리고 개인의 이상주의 또는 상대주의 같은 도덕 철학이 비윤리적 신념, 조직 내 일탈행위 등 윤리적 문제의 도덕적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밝혔다(예: Barnett & Vaicys,

2000; Douglas & Wier, 2000; Elias, 2002).

정리하면, 대리인이론-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윤리 교육은 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 즉 비윤리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더 엄격한 이상주의적 도덕철학을 강화시키고 이는 회계 부정에 대한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다음 가설을 도출했다.

가설 1: 윤리 교육은 비윤리적 행동 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윤리 교육과 비윤리적 행동 의향 관계에서 이상주의적 도덕 철학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윤리 교육은 이상주의적 도덕 철학을 강화시키고 이는 비윤리적 행동 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3 윤리 교육과 개인의 조절 초점(regulatory focus)

윤리 교육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는 개인 특성(예: 도덕발달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검토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인지 관점에서 자기통제(self regulation) 메커니즘의 영향을 검토한다(Stajkovic & Luthans, 1997).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익은 추구하고 손실은 회피하는 의사결정을 한다. 이 목표를 위해 향상 초점(promotion focus)과 예방 초점(prevention focus)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한다. 향상 초점 유형은 긍정적 결과, 성장을 추구하고 이상적 자아(ideal self)를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이상, 희망, 열망 등과 같은 성장 욕구와 관련된 조절 기제로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는지 없는

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동을 조절한다. 의사결정 상황에서는 올바른 대안을 놓치는 오류를 피하고자 한다. 예방 초점 유형은 안전성을 추구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했느냐에 따라 행동을 조절한다. 부정적인 결과 유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정적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의사결정시 잘못된 대안을 기각하려 하고 이를 선택하는 오류를 피하고자 노력한다(Higgins, 1997, 1998).

사람들은 두 가지 조절 시스템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자신을 일치시키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자신의 조절 초점 성향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며 자신의 조절 초점과 일치하는 정보를 더 선호하게 된다. 본인의 조절 초점과 정보처리 상황이 일치하면 더 쉽게 몰입하고, 일치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 더 옳다고 느낀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윤리 교육을 통해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비윤리적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 상황 등의 정보를 전달하면 항상 초점이 강한 사람보다 예방 초점이 강한 사람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설득이 잘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부정적 메시지가 있고 없음은 예방 초점 사람에게 더 설득적이기 때문이다(Cesario, Grant, & Higgins, 2004). 예방 초점 성향의 사람들은 원칙, 책임을 다하며 안전을 추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잘못된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부정적 결과를 피하려 하기 때문에 윤리 교육에 설득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에 윤리 교육이 윤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예방 초점이 강한 사람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다음 가설을 도출했다.

가설 3: 윤리 교육이 비윤리적 행동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촉진 초점보다 예방 초점 성향이 강한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III. 연구설계

3.1 실험설계

3.1.1 실험 자극물과 사전 조사

본 연구는 윤리적 행동(의향)에 대한 윤리 교육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영관련 전공 학생을 피험자로 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사용될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사전 테스트를 거쳐 본 실험에 사용했다.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고 의사결정(의향)을 묻는 시나리오 기법은 국내의 다수 의사결정 연구에서 사용됐다(예: Jung, 2001; Hunt & Laverie, 2004 등). 시나리오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회계 부정의 대표 유형이자 금액 피해가 가장 심각한 '분식회계(허위 외상 매출 기록)' 유형을 선택했고 부정삼각이론의 동기, 기회, 합리화 세 가지 구성요소가 결합되어 부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개발했다.

시나리오 사례 개발은 부정유형에 따른 실무적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외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회계과 교수가 미국 및 국내 회계사회에서 사용하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바탕으로 가상의 신용 매출을 승인 하는 장부조작이 포함된 1차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전문가와 함께 학부생이 이해하기 적당한 용어로 수정했다. 개발된 사례는 피실험자와 동일한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통해 딜레마 정도, Cressy의 부정삼각 세 요인 수준 등을 점검하여 ($n=36$, 동기 4.05, $p=.00$, 기회 3.43, $p=.04$, 합리화 3.5, $p=.00$, 딜레마 정도 4.05, $p=.00$) 최종 확정하고 본 실험에 사용했다(Figure 1) 참고).

코스닥상장사 (주)한국은 지속되는 매출액 감소를 이유로 2020년 1월 1일 CEO를 교체했다. 주주들은 CEO에게 향후 3년 동안 매년 15% 이상의 매출액 증가를 요구했고, CEO는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했다. 그러나 CEO가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음에도 코로나로 인해 매출액 증가 15%를 달성하기는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연말 성과 평가 후 CEO와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예상된다.

CEO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회사에, 목표 달성에 필요한 매출액(15%)을 가상의 신용(외상)거래로 발생시켰다. 거래처에 제품을 먼저 주고 대금은 내년에 받는 외상거래지만 (주)한국의 제품은 실제로 전달하지 않는 가상 거래다. 장부상에는 올해 매출액으로 기록된다. 가상 거래는 성과 평가와 주주총회가 끝나는 내년 3월 말 취소할 예정이다.

최신우씨(나)는 (주)한국의 회계팀 팀장이다. 나는 회사 영업 방침상 신규 거래처는 반드시 외부 신용평가 기관의 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외상거래를 승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CEO는 CEO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는 내부 규정이 있으니 해당 매출을 승인하라고 지시했다.

회사의 거래 발생에 대한 승인은 회계 팀장인 내 전결 처리로 해당 거래를 더 이상 검토할 내부 직원은 없다. (주)한국은 이 가상 매출을 통해 목표치인 매출액 15%를 증가시킬 수 있고 경영악화로 인한 CEO와 나를 포함한 직원들의 정리해고를 막을 수 있다.

〈Figure 1〉 실험에 사용된 시나리오

윤리 교육 교육은 회계과 교수가 직접 실시했으며 앞서 설명한 정보 비대칭, 도덕적 해이, 대리인 이론을 사례와 함께 설명하는 25분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실험 집단의 경우는 실시간 수업 시간에 윤리 교육 영상을 시청했으며 통제 집단은 특별한 교육 없이 수업 강의 (또는 25분 수업 영상)를 시청했다. 본 실험에서는 대리인 이론 관련 사전 지식수준을 체크하여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간 사전 지식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실험 2.39, 통제 2.11 $p = .31$).

3.1.2 실험 절차 및 응답자 특성

윤리 교육을 실험처치로 조작하고 윤리 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는 집단간 비교 설계(between subject design)를 진행했다.²⁾ 실험대상자는 충북지역 소재 경영학부 학생(경영, 회계 전공자)으로 실험에 사용된 윤리적 의사결정 상황에 대한 이해를 고려해, 전공 개론 과목을 수강한 2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응답자는 학과에서 실시하는 서베이(학생 특성 및 수업 만족도 조사로 공지) 참여를 안내받고 참가할 경우 출석 가산점이 제공된다는 공지를 받았다.

2) 동일 응답자의 윤리 교육 전후 변화를 측정하는 집단내(within) 반복측정 설계의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윤리적 이슈에 대해 실험 전후 의사결정을 측정하고 비교해야하는 제약이 생긴다. 윤리적 이슈에 대한 학습효과 및 이슈 차이에서 발생하는 혼동효과 발생을 고려하여 집단간 설계를 실시함.

참가 희망자는 랜덤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할당됐고 차수별로 1주의 간격을 두고 1차, 2차, 3차에 걸쳐 총 3주, 3회 설문에 응답했다. 실험 1주차는 개인 특성 변수(인구통계, 전공 수강 내역, 도덕적 정체성, 도덕 철학, 개인 조절성향 등)에 대해 응답하고, 2주차는 윤리 교육 실시 후 처치 확인 및 개인 특성(인구통계, 도덕 철학 등)에 대해 응답했다. 3주차는 윤리적 문제가 담긴 시나리오에 노출 후 해당 상황에서 비윤리적 의사결정을 하겠는지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최초 실험 참가자는 229명이었으나 최종 3차까지 3주 동안 성실하게 모든 실험에 참가한 응답자는 총 148명이었다.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는 실험 집단 92명, 통제 집단에 56명으로 통제 집단의 중도탈락자 수가 많았으나 탈락자의 유의미한 특성은 없었다. 응답자 중 남자는 86명, 여자 62명으로 2학년 8명, 3학년 97명, 4학년 43명, 경영학 전공은 84명, 회계학 전공자는 64명이 참가했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항목

3.2.1 종속변수-비윤리적 행동의향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는 회계담당자의 비윤리적 행동(의향)으로 세 가지 문항으로 측정했다. 구체적으로, 가상거래를 승인하라는 상사의 명령을 따르겠는지를 질문하고 가상거래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승인한다를 극단으로 한 5점 척도로 측정했다. 그리고 실제 담당자가 가상의 외상거래를 승인했다는 정보를 주고 본인은 동일한 의사결정을 하겠는지, 실제로 같은 행동을 하겠는지 등을 각각 질문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매우 그렇다를 극단으로 놓은 5점 척도로 측정했다(Hunt & Vitell, 1986). 세 문항

모두 점수가 낮을수록 윤리적 의사결정 행동을 하는 것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비윤리적 의사결정 행동의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3.2.2 매개 및 조절변수-도덕 철학, 조절초점

개인의 도덕철학은 규범적 틀에 대한 개인의 선호나 신념으로 조작 정의하고 개인의 도덕적 이상주의 정도를 나타내는 윤리 포지션 문항(Ethics Position Questionnaire, EPQ)으로 측정했다(Forsyth, 1980). Forsyth는 전통적인 의무론적, 목적론적, 회의론적 도덕철학을 바탕으로 개인의 윤리적 포지션을 측정할 수 있는 이상주의와 상대주의 측정 도구를 개발했다. 본 연구는 응답자의 이상주의 정도를 측정하는 (내게) 좋은 혜택이 생기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일은 잘못된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해를 가해서는 안된다 등의 여섯 문항을 측정했고 신뢰도 및 요인 분석 등을 거쳐 최종 다섯 문항을 사용했다.

실험 참가자의 조절 초점 성향은 촉진 초점 아홉 개의 문항과 예방 초점 아홉 개의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원 척도와 마찬가지로 7점 척도로 측정했다. 항목에 대한 요인 및 신뢰도 분석을 거쳐 예방 초점 여섯 문항, 촉진초점 일곱 문항을 최종 분석에 사용했다. 응답자의 성향 구분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촉진 초점 평균과 예방 초점 평균의 차이(촉진 점수의 평균치 - 예방점수의 평균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분리했다. 평균값은 .90이었으며 이보다 큰 값은 촉진 초점, 낮은 값은 예방초점 성향 집단으로 구분했다(Lockwood, Jordan & Kunda, 2002). 이를 통해 평균치를 제외한 예방 초점 성향 응답자 80명, 촉진 초점 성향 응답자 65

명으로 구분했다.

3.2.3 통제변수-개인의 도덕성 및 기타

본 연구의 관심 변수 외에 도덕발달수준(CMD), 도덕성(윤리적 민감성) 등의 개인 특성 변수는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Hunt & Vitell, 1986). 개인의 도덕성을 도덕 정체성으로 측정하고 이를 통제했다. 도덕 정체성은 일련의 도덕적 특성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자아 개념으로 사회적 자아의 한 구성요소다. 사람마다 도덕적 자아가 자신의 자아 구성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다르다. 강한 도덕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 도덕적 정체성이 자신의 사회적 자아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그들의 도덕적 자아과 행동 사이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Aquino & Reed, 2002). 개인별 도덕 정체성의 중요성을 측정해서 이를 통제했다. Aquino & Reed(2002)를 바탕으로 공정, 관대, 근면, 정직, 양심적, 믿을 수 있는 등의 단어 조합을 제시하고 이 특성을 가지

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에 어느 정도 중요한지, 자아에 어느 정도 중요한지, 이런 특성을 갖고 싶은 정도 등의 네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했다. 또한, 응답자의 회계관련 지식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전공(경영/회계)을 통제변수로 사용했다. 그 외 데모그래픽 특성(성별, 학년)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혼동 효과를 줄이기 위해 응답자를 랜덤 배정했고, 실험 후 성(t=.185), 학년(F(1,145)=1.26)에 따라 종속변수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Table 1>에 측정 변수의 기술통계량, 상관관계 등을 제시했다.

IV. 연구결과

4.1 윤리 교육의 효과

가설1은 윤리 교육이 학생의 비윤리적 행동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Table 1> 측정변수의 기술통계량, 상관관계

변수	문항 수 (척도)	1	2	3	4	5
1. 비윤리적 행동의향	3 (5)	1				
2. 이상주의 도덕철학	5 (7)	-.23**	1			
3. 도덕성	4 (5)	.02	.43**	1		
4. 예방초점 성향	6 (7)	.00	.18*	.21**	1	
5. 촉진초점 성향	7 (7)	.09	.17*	.18*	-.04	1
평균		3.19	5.86	4.12	4.50	5.40
표준 오차		.99	.91	.68	.08	.06
Cronbach's α		.93	.87	.87	.75	.83
Eigen value		2.66	3.30	2.87	2.72/1.09 두 개 요인	3.52

**p < .01, *p < .05

연구는 교육 실행 유무별 비윤리적 행동의향에 대한 차이 검증을 실시했다. 교육 실행 집단에서 비윤리적 행동의향은 5점 척도 기준 3.05(s.e. .10) 그리고 비실행 집단은 3.41(s.e. .12)로 교육을 실행하지 않은 집단에서 비윤리적 행동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t 검증 결과,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t=2.14, p=.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수에 대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기술통계량을 <Table 2>에 제시했다. 추가로, 개인의 도덕성, 전공을 통제한 상태에서 윤리 교육에 따른 비윤리적 행동의향 차이를 검증한 공분산 분석 결과에서도 교육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모형 $F(3, 144) = 2.72, p=.047$, 주효과 $F(1,144) = 4.69, p=.03$). 이로써 윤리 교육이 비윤리적 행동의향을 감소시킨다는 가설1은 지지되었다.

가설2는 윤리 교육과 비윤리적 행동의향 관계에서 이상주의적 도덕철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윤리 교육이 이상주의적 도덕철학을 강화시키고 이것이 비윤리적 행동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설 검증을 위해 Hayes (2017)의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했다. 교육실행 여부를 독립변수, 비윤리적 행동의향을 종속변수, 이상주의 도덕철학 정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하고 단순매개(모델 4) 분석을 실시했다. 비윤리적 행동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응답자의 도덕성, 전공 등을 통제변수로 추가했

다. 부트스트래핑 샘플은 10,000, 신뢰구간은 95%로 지정했다.

<Table 3>에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교육 실행여부를 독립변수로 비윤리적 행동의향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Model 1의 추정모형은 유의했으며($F(3, 144) = 2.72, p=.04$) 모형의 결정계수(R^2)는 .05로 나타났다. 가설1 검증결과와 마찬가지로 윤리 교육 실행은 비윤리적 행동의향에 $-.36(p=.03)$ 만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 윤리 교육 실행은 이상주의 도덕철학에 유의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계수: .35, $p=.02$, 추정모형 $F(3, 144) = 12.10, p=.00, R^2 = .20$) 윤리 교육을 받은 집단이 받지 않은 집단 대비 이상주의 도덕철학이 .35만큼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추가 분석으로, 교육 받기 전 응답자가 가지고 있던 이상주의 도덕철학 정도를 통제 변수에 추가한 모형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계수: .33, $p=.02$, 추정모형 $F(4, 143) = 21.77, p=.00, R^2 = .38$).

Model 3은 교육 실행과 이상주의 도덕철학을 모두 독립변수로 포함하고 비윤리적 행동의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추정 모형은 유의했고($F(4, 143) = 4.85, p=.00$) 모형의 결정계수(R^2)는 .12로 나타났다. 윤리 교육이 비윤리적 행동의향에 미치는 직접효과(계수: $-.26, p=.11$)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이상적 도덕철학이 비윤리적 행동의향에 주는 영향은 계수 $-.29$

<Table 2> 실험, 통제 집단의 기술통계량, 차이검증

()표준오차	비윤리적 행동의향	이상주의	도덕성	예방 초점 성향	촉진 초점 성향
실험(교육 실행)	3.05 (.10)	5.78 (1.02)	4.05 (.71)	4.52 (1.05)	5.35 (.78)
통제(교육 비실행)	3.41 (.12)	5.55 (.97)	4.24 (.63)	4.46 (.94)	5.48 (.75)
t value (between)	2.14	1.35	-1.65	.35	-.98

($p = .00$, [LL=-.46, UL=-.13])로 신뢰구간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윤리 교육과 비윤리적 행동의향 관계에서 이상주의 도덕철학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 교육이 비윤리적 행동의향에 미치는 총효과(-.36) 중 직접 효과는 -.26(유의하지 않음), 이상주의 도덕철학 강화를 통한 간접효과는 -.10 (세 자리수 반올림, 유의함)으로 확인됐다(〈Table 3〉참조).

종합하면, 윤리 교육은 응답자의 비윤리적 행동 의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효과는 이상주의 도덕철학 강화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윤리 교육이 이상주의 도덕철학을 강화시키고 이것이 비윤리적 행동 의향을 낮추는 것이다. 이로써 가설1과 가설2는 모두 지지되었다.

4.2 윤리 교육에 대한 개인의 조절 초점 효과

가설3은 윤리 교육의 효과가 응답자의 조절 초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이원분산분석, 추가로 Hayes의 Macro process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했다. 윤리 교육 실행여부를 독립변수, 비윤리적 행동의향을 종속변수, 응답자의 조절 초점을 더미(예방 초점인 경우 1, 촉진 초점인 경우 0) 조절 변수로 설정하고 통제 변수를 추가한 분산분석을 실시했다. 결과, 모형은 유의했고($F(5,139)=2.59$, $p=.03$) 교육 실행과 조절초점 성향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139)=3.95$, $p=.049$, 〈Table 4〉 왼쪽 표 참조). 〈Figure 2〉를 보면, 촉진 초점 성향의 집단은 교육 여부별로 비윤리적 행동 의향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예방 초점 성향이 강한 집단은 교육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추가로 부트스트래핑 분석(샘플 10,000, 신뢰구간은 95%로 지정, Process Macro 모델 1)을 실시했다. 마찬가지로, 윤리 교육과 예방 초점 성향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4〉 오른쪽 부스트래핑 분석 참조, 상호작용항 계수: -.65,

〈Table 3〉 윤리 교육, 이상주의 도덕철학, 비윤리적 행동의향의 관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Y(비윤리 행동)-Model 1			M(이상주의)-Model 2			Y(비윤리행동)-Model 3		
	B	s.e	p	B	s.e	p	B	s.e	p
constant	3.22	.53	.00	2.93	.49	.00	4.06	.58	.00
교육	-.36	.17	.03	.35	.16	.03	-.26	.17	.11
이상주의	-	-	-	-	-	-	-.29	.09	.00
도덕성 ^b	.01	.12	.96	.63	.11	.00	.19	.13	.15
전공(경영1) ^b	.31	.16	.06	-.11	.15	.44	.27	.16	.09
	$R^2 = .05$			$R^2 = .20$			$R^2 = .12$		
	$F(3, 144)=2.72, p = .04$			$F(3, 144)=12.10, p = .00$			$F(4, 143)=4.85, p = .00$		
직접효과	-.26 (.17)		$p = .11$						
간접효과	-.10 (.06)		[LLCI=- 2.3, ULCI=-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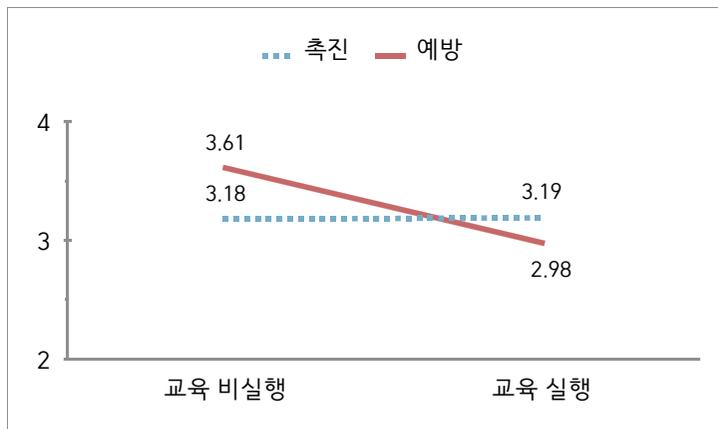
b 비윤리적 행동의향에 영향을 주는 통제변수, () 표준오차

<Table 4> 윤리 교육-비윤리적 행동의향 관계에서 예방초점 성향의 조절 효과

독립변수	분산분석			부트스트래핑 분석		
	d.f	F	p	B	s.e	p
constant	1	36.31	.00	2.93	.53	.00
교육	1	3.63	.06	.02	.24	.95
예방초점(dumy1)	1	.47	.49	.44	.26	.10
교육×예방초점	1	3.95	.049	-.65	.33	.049
전공b	1	5.66	.02	.38	.16	.02
도덕성b	1	.01	.94	.01	.12	.94
모형	5	2.94	.02	R ² = .09, F(5, 139) = 2.59, p = .03 R ² change(a) = .03 F(1,139) = 3.95, p = .05		

b 비윤리적 행동의향에 영향을 주는 통제변수

조절성향별 비윤리적 행동의향에 대한 교육효과			
	Effect	s.e	p
예방초점	-.63	.22	.01
촉진초점	.02	.24	.95



<Figure 2> 조절초점 성향별 윤리 교육 여부에 따른 비윤리적 행동 의향

$p = .049$, [LL = -1.29, UL = -.001]). 예방 초점 성향 집단이 윤리 교육을 받을 경우, 촉진 초점 집단 대비 -.65만큼 비윤리적 행동 의향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윤리 교육은 응답자의 비윤리적 행동 의향을 감소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촉진초점 성향 집

단보다 예방 초점 성향을 가진 집단의 비윤리적 행동의향 감소가 유의하게 더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윤리 교육의 효과가 촉진 초점 성향 보다 예방 초점 성향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가설 3은 지지되었다.

V. 결론

5.1 연구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인 회계 부정과 윤리 교육 간의 관계를 탐색했다. 회계 부정은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흡 그리고 회계 부정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다.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발생하는 회계 부정 예방을 위해서는 회계정보 생산자, 예비 구성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회계 부정의 책임은 일정 부분 학계의 윤리 교육 프로그램 부족 때문이라는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Martinov-Bennie & Mladenovic, 2015; Smith, Smith, & Mulig, 2005). 기존 연구가 윤리 교과목을 통한 학생들의 도덕 발달 수준 등을 주로 탐색했다면 본 연구는 의사결정(행동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탐색했고 사례를 바탕으로 한 특강 형식의 윤리 교육을 도구로 사용했다. 실험을 통해, Cressy(1953)의 부정삼각이론을 바탕으로 한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윤리 교육이 회계 부정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는가를 검증하고 윤리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 그리고 응답자의 조절 초점 성향별로 어느 집단에서 더 효과가 좋은가를 탐색했다.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강 형식의 윤리 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받지 않은 집단 대비 허위 외상 매출을 승인한다는 의향 즉 비윤리적 행동 의향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1). 이는 윤리 교육을 받은 집단에서 받지 않은 집단 대비 도덕적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상주의적 도덕철학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비윤리적 행동 의향을 감소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가설 2). 이 결과는 응답자들이 사전 가지고

있는 이상주의 도덕철학 정도를 통제된 상태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윤리 교육이 비윤리적 행동 의향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의 이상주의 도덕철학이 매개 역할을 했음을 의미한다.

가설1,2의 검증은 윤리 교육의 효과가 도덕성 향상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 의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 기존연구 결과를 보완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Hunt & Vitell(1986)의 윤리적 딜레마-도덕철학-(도덕판단)-행동의향 모델을 적용해 윤리 교육이 피교육자의 도덕 철학에 영향을 미쳐 행동 의향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확인했다. 이 결과를 통해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윤리수준인 도덕발달수준(CMD)과는 독립된 도덕철학만의 역할을 검증했다. 이로써 기존 연구의 주 관심 대상인 인지적 도덕발달수준 뿐 아니라 도덕 철학에 대한 교육 효과를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다(Forsyth, 1980; Fraedrich & Ferrell, 1992). 더 나아가 개인의 윤리적 규범 즉, 도덕 철학이 20대 성인 대학생임에도 일정 부분 수정, 보완될 수 있음을 제시해 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했다(Weber & Glyptis, 2000).

실무적으로는, 개인의 도덕성이 실제 현장에서 막닥뜨리는 부정 사례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고려한 구체적 사례를 통한 체험 교육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도덕성이 높은 개인 이더라도 현장에서 부딪치는 사례별로, 부정 행위를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은 서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장 경험이 없는 학생 대상의 교육인 경우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정형화된 윤리 교육 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도구 개발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윤리 교육에 의한 비윤리적 행동의향 감소 효과는 예방적 조절 초점 성향이 강한 집단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가설 3). 윤리

교육에서 실시된 대리인의 도덕적 해이가 가져오는 광범위한 피해, 범죄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지적 등 부정적 정보의 제시는 촉진 초점 보다 예방 초점 성향을 가진 집단에서 더 설득적으로 수용되어 교육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Cesario, Grant, & Higgins, 2004). 이 결과는 개인 특성 변수 중 그동안 상대적으로 탐색이 덜 됐던 조절 초점의 효과를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 실무자 그리고 예비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 행위 방지 교육에 있어 응답자의 조절적 성향을 고려하는 것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교육전 응답자의 특성을 사전 인지하고 이를 고려한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SG 경영을 통한 기업 윤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점점 더 강조되는 상황에서 실행자인 조직 구성원 그리고 예비 구성원의 도덕성 제고는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윤리 교육을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계 부정 예방을 위한 특강 형식의 윤리 교육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의미가 있다. 윤리 교과 부족 해소를 위해 비교과 내에서 윤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2 연구 한계점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를 보완한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주체 특성상 실험 설계로 윤리 교육의 효과를 탐색했으나 이로 인한 제약이 존재한다. 우선, 실험에 참여한 응답자가 지역, 학생, 전공, 인원 수 등에 있어 제한적이라 결과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추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윤

리 교육 연구에서 응답자 범위를 확장하고 타 전공자 등과 비교 또는 실제 현장에 있는 업무 종사자 대상의 연구를 진행해 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둘째, 실험 도구의 제한이다. 윤리적 딜레마를 담은 시나리오는 타당성 확보를 위해 부정행위 유형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식 회계(허위 외상매출 기록)를 선택했고 회계사 협회에서 사용하는 사례와 Cressy의 부정삼각 이론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개발했다. 더해서 전문가 논의, 사전 테스트 등을 거쳤다. 그럼에도 사례별 특수성에서 오는 차이는 존재할 것이고 결과 일반화와 타 연구와 비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셋째, 개인별 조절 초점 성향에 따른 윤리 교육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조절 변수인 조절 초점을 실험 처치 전 측정하고 분석 과정에서 촉진 초점, 예방 초점 성향 집단 등으로 구분했다. 상기 방법의 장점에도, 실험 과정에서 사전 자극물, 프라임 등을 통해 개인의 조절 초점을 실험 처치로 조작하는 것이 좀 더 엄격한 실험 설계였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윤리 교육의 효과를 단기적으로 검토했다. 즉 교육 후 윤리적 의사결정 의향을 바로 측정하고 이를 검증했다. 윤리 교육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지 또는 어떻게 달라지는 등은 검토하지 못했다. 또한 교육 1회 시행 후 그 효과를 탐색했다. 추후 반복적인 교육 효과 측정과 장기적 교육 효과 등을 검토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회계 부정 맥락에서 윤리 교육의 효과를 탐색했다. 기존 마케팅, 인사조직 등에서 연구된 분야별 부정행위, 윤리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와 함께 큰 틀에서 검토하고 리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추후 경영학 전공 학생을 위한 윤리 교과 및 특강형식 교육도구 개발을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분야별 이론을 검토하여 비윤리적 행위를 일으키게 되는 상황적, 내적 기제 등을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면 비윤리적 행동 예방을 위한 교육 도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Albrecht, C., D. Holland, and R. Malagueño(2015), "The Role of Power in Financial Statement Fraud Schem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31, pp.803-813.
- Aquino, K., and A. Reed II(2002), "The Self-Importance of Moral Ident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6), pp.1423-1440.
- Arkelof, G. A.(1970),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4(3), pp 488-500.
- Barnett, T. and C. Vaicys(2000), "The Moderating Effect of Individuals' Perception of Ethical Work Climate on Ethical Judgments and Behavior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Ethics*, 27(4), pp.351-362.
- Beneish, M. D.(1999), "Incentives and Penalties Related to Earnings Overstatements that Violate GAAP," *The Accounting Review*, 74 (4), pp.425-457.
- Cressy, D. R.(1953), *Other People's Money: A Study in the Social Psychology of Embezzlement*, in IOFP(Institute for Occupational Fraud Prevention)(Eds.), *Corporate Fraud Theory and Prevention Strategies: Corporate Fraud Prevention Report* (pp.50-75), http://www.iofp.or.kr/bbs/board.php?bo_table=BBS&wr_id=19 (retrieved March 2021, original work published 1953).
- Cesario, J., H. Grant, and E. T. Higgins(2004), "Regulatory Fit and Persuasion: Transfer from "Feeling Righ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3), pp.388-404.
- Douglas, P. C., and B. Wier(2000), "Integrating Ethical Dimensions into a Model of Budgetary Slack Cre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28(3), pp.267-277.
- Dorminey, J. W., A. S. Fleming, M. J. Kranancher, and R. A. Riley Jr(2010), "Beyond the Fraud Triangle: Enhancing Deterrence of Economic Crimes," *The CPA Journal*, 80(7), pp.17-23.
- Elias, R. Z.(2002), "Accountants' Perceptions of the Ethics of Earnings Management," *Research on Accounting Ethics*, 8, pp.103-124.
- Forsyth, D. R.(1980), "A Taxonomy of Ethical Ideolo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1), pp.175-184.
- Forsyth, D. R.(2019). *Making Moral Judgment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Morality, Ethics, and Decision-Making*[Adobe Digital Edition Version], doi.org/10.4324/9780429352621
- Fraedrich, J. P. and O. C. Ferrell(1992), "The Impact of Perceived Risk and Moral Philosophy Type on Ethical Decision Making in Organiza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24, pp.283-295.
- Goolsby, J. R. and S. D. Hunt(1992), "Cognitive Moral Development and Marketing," *Journal of Marketing*, 56(1), pp.55-68.
- Hayes, A. F.(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Healy, P. M. and K. G. Palepu(2001), "Information Asymmetry, Corporation Disclosure, and the Capital markets: A Review of the Empirical Disclosure Literatur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1(1-3), pp. 405-440.
- Higgins, E. T.(1997),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52(12), pp.1280-1300.
- Higgins, E. T.(1998), "Promotion and Prevention: Regulatory Focus as a Motivational Principle,"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pp.1-46.
- Hunt, S. D., and D. A. Laverie(2004), "Experiential Learning and the Hunt-Vitell Theory of Ethics: Teaching Marketing Ethics by Integrating Theory and Practice," *Marketing Education Review*, 14(3), pp.1-14.
- Hunt, S. D. and S. J. Vitell(1986), "A General Theory of Marketing Ethics," *Journal of Macromarketing*, 6(1), pp.5-16.
- Jensen, M. C., and W. H. Meckling(1976),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4), pp.305-360.
- Jones, T. M.(1991), "Ethical Decision Making by Individuals in Organizations: An Issue-Contingent Model,"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6(2), pp. 366-395.
- Jung, J. E.(2001), "The Influence of Adverse Selection Conditions and Ethical Reasoning on the Tax Officials' Decision Making," *Korean Management Review*, 30(4), pp. 1203-1223.
- Kish-Gephart, J. J., D. A. Harrison, and L. K. Treviño(2010), "Bad Apples, Bad Cases, and Bad Barrels: Meta-Analytic Evidence about Sources of Unethical Decisions at Work,"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5 (1), pp.1-31.
- Kohlberg, L.(1981).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Moral Stages and the Idea of Justice* (M. N. Kim et al., Trans.), Seoul, Kyoyookbook, 2000,(original work published in 1981, New York, Harper & Row).
- Lee, M.G. and S.J. Chang(2012), "The Necessity for Education to Deter Accounting Fraud and the Directions of Accounting Fraud Education,"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54(2), pp.41-76.
- Lockwood, P., C. H. Jordan, and Z. Kunda(2002), "Motivation by Positive or Negative Role Models: Regulatory Focus Determines Who Will Best Inspire 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4), pp.854-864.
- Martinov-Bennie, N. and , R. Mladenovic(2015).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an Ethical Framework and an Integrated Ethics Education on Accounting Students' Ethical Sensitivity and Judgment," *Journal of Business Ethics*, 127 (1), pp.189-203.
- Moon, K. H.(2017). "The Role of Reasoning and Intuition in Moral Decision-making," *Journal of Moral & Ethics Education*, 4, pp.85-115.
- Pae, S.J. and J. T. Kim(2018), "Can the Ethics of Members of Society Be Taught in Accounting," *Korean Accounting Journal*, 27(5), pp.135-166.
- Reidenbach, R. E. and D. P. Robin(1990), "Toward the Development of a Multidimensional Scale for Improving Evaluations of Business Ethics," *Journal of Business Ethics*, 9, pp.

- 639-653.
- Rest, J. R.(1986).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Y. L. Moon et al. Trans.), Seoul, Hakjisa, 2008,(original work published in 1986, New York, Praeger).
- Rho, J. H. and G. S. Bae(2004), "An Analysis of Accounting Failures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Business, Accounting, Audit, and Regulatory Environment," *Korean Accounting Journal*, 13(2), pp.155-180.
- Sims, R. R. and S. J. Sims(1991), "Increasing Applied Business Ethics Courses in Business School Curricula," *Journal of Business Ethics*, 19, pp.211-219.
- Singhapakdi, A., S. J. Vitell, and G. R. Franke (1999), "Antecedents, Consequences, and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Moral Intensity and Personal Moral Philosophie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7 (1), pp.19-36.
- Smith, L. M., K. T. Smith, and E. V. Mulig(2005), "Application and Assessment of an Ethics Presentation for Accounting and Business Class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61(2), pp.153-164.
- Stajkovic, A. and F. Luthans(1997), "Business Ethics across Cultures: A Social Cognitive Model," *Journal of World Business*, 32(1), pp.17-34.
- Treviño, L. K.(1986), "Ethical Decision Making in Organizations: A Person-Situation Interactionist Model,"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3), pp.601-617.
- Treviño, L. K., G. R. Weaver, and S. J. Reynolds (2006), "Behavioral Ethics in Organizations: A Review," *Journal of Management*, 32(6), pp.951-990.
- Valentine, S. R., and C. R. Bateman(2011), "The Impact of Ethical Ideologies, Moral Intensity, and Social Context on Sales-based Ethical Reasoning," *Journal of Business Ethics*, 102 (1), pp.155-168.
- Walker, K. L., and N. Moran(2019), "Consumer Information for Data-driven Decision Making: Teaching Socially Responsible Use of Data," *Journal of Marketing Education*, 41(2), pp. 109-126.
- Weber, J. and S. M. Glyptis(2000), "Measuring the Impact of a Business Ethics Course and Community Service Experience on Students' Values and Opinions," *Teaching Business Ethics*, 4(4), pp.341-358.
- Wells, J. T.(2010), *Principles of Fraud Examination*, 3rd,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 The author Jae Mee Yoo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marketing at th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Cheongju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CSR, ESG and consumers' responsive behavior to marketing activities.
 - The author Mi Lim Chon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accounting at th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Cheongju University.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CSR, ESG and disclosure.
 - The author Woojae Choi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Organization & Human Resource Management at th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at Cheongju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leadership, positive organization scholarship, ESG, and workplace learning and training.